

20세기 후기에 나타난 서양 남성 속옷의 특성

김주애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The Characteristics on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C

Ju-Ae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001. 8. 9 투고)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istorical changes, and analyze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western men's underclothe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C. This study will examine how the social backgrounds influenced on the changes of the functions of men's underclothes and how the changes of outer garments were reflected on underclothes in the second half of the 20C.

In the early, the second half of the 20C, underwears of functions was continued to cleanliness and comforts. In the later of the 20C, underwears came to be seen as expressing male sexual power when it became body-conscious. By the changes of outer garments, underclothes changed the same size of proportion. In the late 1960's, the turtleneck type of shirts were copied by outer garments, and we understand that underwear can influence on outer garments.

The ruffles of the 18th century reappeared in the 1960's. This reactionism of the late 20C tells us about the relation between social environments and underwear. So the social backgrounds influenced on the formativeness of men's underclothes.

We understand that underwear can influence on outer garments and outer garments can influence on underwear, too.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he second half of the 20C were the remarkable resemblance of some styles to those of the past and the occasional blurring of the distinction between underwear and outerwear.

Key word: men's underclothes(남성 속옷), the second half of the 20C(20세기 후기)
characteristics(특성) reactionism(복고풍)

I. 서론

20세기 후기에 모드의 흐름은 쾌적함을 추구하는 캐주얼 경향으로 전환되면서 활동에 편한 헐렁한 파자마 팬츠나 가벼운 실크 셔츠가 애호되었다. 또 여가 생활을 소중히 여겨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패션이 창출됨으로써¹⁾ 실내복과 속옷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복고풍은 패션계에도 영향을 미쳐 복고풍을 고려한 디자인이 개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속옷에 대한 관심이나 복고풍에 대한 유행현상을 감안하여 볼 때 역사적으로 속옷을 고찰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현대에 들어 여성복 못지 않게 남성복도 기능과 용도가 다양화되면서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연구는 주로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속옷은 적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고대에서 근대까지 남성 속옷에 관하여 연구²⁾한 바 있다.

전보³⁾의 20세기 전기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에 이어 본고에서는 연구 범위를 20세기 후기에 국한시켜 남성 속옷의 품목에 따라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형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세기 후기의 남성 속옷이 갖는 기능과 형태적 변화를 밝히며, 사회·문화적 환경이 남성 속옷에 영향을 미친점 및 겉옷과 속옷과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는 20세기 전기 남성 속옷과의 차이점을 밝혀서 20세기 후기의 남성 속옷이 갖는 중요성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과 국·내외의 관련 문헌이나 선행연구를 참고하였다.

II. 20세기 후기의 사회·문화적 배경

제2차대전 후의 현대 복식은 여성 해방 의식의 표출, 유니섹스화, 노출이 강조된 여성의 에로티시즘, 기성복 산업발전에 의한 복식 평준화 등의 특성을 이루었다. 또한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은 무기생산과 새로운 사회적 분업의 창설과 세분화가 추진되어 경제발전이 가속화되었으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 의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산업화가 촉진되었다. 통신·교통기관의 발달로 유럽의 복장이 국제적인 의복으로 되며 전쟁 중에 개발된 인조섬유와 천연섬유의 교직물이나 나일론, 데이크론, 울론 등의 실용적이고 관리가 쉬운 소재가 인기가 있었다. 영화에서 크라클 케이블이 맨살을 드러내기 위해 셔츠를 벗었던 것이 오히려 언더셔츠와 베스트의 판매 상승에 수년동안 영향을 끼쳤으며, 블루진과 함께 티셔츠를 착용한 제임스딘이나 마론 브란도와 같은 영화배우에 대한 우상의 모방은 지금까지도 그 차림새의 인기가 유지되고 있다.⁴⁾

19세기 이래로 남성복은 단조롭고 관습적이었으나 60년대에 존스 스테픈(Johns, Stephen)⁵⁾과 같은 활동적인 젊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색상과 스타일에서 혁신적으로 변화되어 피콕 혁명(peacock revolution)⁶⁾이 이루어졌다.⁷⁾ 60년대에 로마에서 올림픽이 개최됨으로써 이탈리아가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열대성의 원색이 직물이나 넥타이에 영향을 끼쳤다. 또 영화 007시리즈의 주인공 제임스 본드로 인해서 안소니 싱크레아가 디자인한 본드룩이 유행하였으며, 제이에프캐네디의 대통령 취임은 미국의 남성 패션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 또한 60년대에 사파리 자켓을 유행시킨 Ted Lapidus에 의해 유니섹스 스타일이 인기가 있었다.⁸⁾ 60년대 중엽부터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영패션과 니트웨어가 특히 유행되었다. 70년대는 집시룩, 스포츠웨어룩, 루즈룩, 빅룩, 레이어룩 등 여성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성인 패션시대를 이루었고 세계적으로 진과 블레이저폼이 시작되었다. 80년대에는 반산업주의적인 뉴 웨이브 패션이 발생되었다. 다음의 뉴욕 이후 패션의 역사는 매시즌 패션트렌드의 역사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미니의 부활, 팬츠의 다양화 등을 거쳐 패션 트렌드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스틸리스트의 일은 각양각색이고 퍼스널 캐릭터 및 스타일의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디자인은 기능적인 옷, 스포티브 룩을 기본으로 하고 그 변화로서 포크 로어, 페미닌, 로맨틱, 머린, 밀리터리룩 등

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80년대 중반의 흐름은 바디 컨셔스(body conscious)로 향하였으며, 안티 쿠틀러의 일본 스타일에 대하여 유럽의 쿠틀러에들은 바로크적인 장식주의를 주장하는 신장식주의가 대두되었다. 90년대에는 활동적인 스트리트 패션이 인기가 있었으며, 90년대 중기에 이르러서는 클래식으로의 레트로현상이 두드러졌다.

속옷과 겉옷에는 비록 슈트, 정장용 자켓, 트라우저가 보통 사무직의 필수품으로 유지되어온 범위로서 구분이 되지만 이제 속옷은 매우 넓은 의미로 타이랙(Tie Rack)부터 켈빈 클레인까지 유행에 민감한 용어와 유사하게 받아들여졌다.⁹⁾

III. 20세기 후기의 남성복 특징

제2차 세계대전후 어깨패드로 인한 넓은 어깨선과 강렬한 무늬나 배색을 특징으로 한 볼드 룩(bold look)¹⁰⁾이 유행되었으나 50년대 중반에는 자연스런 어깨선에 과장이 없는 아메리칸 네추럴(American natural)풍이 발표되었고, 50년대 말기에 유럽대륙풍의 타이트한 아메리칸 콘티넨탈(American continental)¹¹⁾풍이 발표되었다. 대체로 전후 미국에서는 허리를 조이지 않는 네추럴 스타일이 기본형으로 되며 깃과 넥타이 폭이 넓어진 반면에 영국에서는 허리를 강조한 볼드룩스 스타일이 유행하여 남성의 신체선이 특히 강조되었다. 또한 50년대 말 미국에서 유행한 아이비 스타일은 어깨폭이 좁고 몸통을 조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상의 느낌에 좁은 바지로 구성되었다.

뉴룩은 남자복에도 큰 영향을 미쳐 큰 칼라로 구성된 긴 상의와 여유있는 바지가 유행되었으며 넥타이폭이 넓어졌다. 전후 유행 속도가 빠르게 됨으로써 주문생산의 남성복은 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성복으로 발달되었다.

60년대 초기에 내추럴 솔드룩이 지속되었고 영국에서는 트라페즈라인 스타일이 발표되었다. 유럽에서는 그레(Greg)가 착용한 검은 색이나 체크셔츠에 부드러운 줄무늬를 선호하였다. 또한 가벼운 셔머 셔츠 및 기능성 직물이 개발되었고, 한여름에도

쾌적하여 칼라나 어깨부위만 다림질하거나 다림질이 필요없는 가공법도 개발되었다. 폴리에스테르에 모, 면, 아크릴 등의 혼방직물이 개발됨으로써 직물이 다양해졌다.

70년대는 세계적으로 진(Jean)과 블레이저(blazer)가 유행되었고 무너있는 타이가 이용되었다. 70년 중반에는 30년대풍이 유행하였으며 파리에서 신사복과 부인복이 함께 조합되어 발표되었다.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적 불황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실업자가 증가된 시기에 신사복은 뉴쓰리피스의 슈트로 구성되었으나 그 후에는 사파리셔츠가 유행되었다. 이 후 신사복은 유행이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넥타이 폭은 점차 좁아져 70년대 말에는 15센티인 것이 8-9센티로 좁아졌고 슬림한 바지형이 유행되었다.

90년대에는 겉옷의 변화되는 패션과는 대조적으로 속옷은 색상과 형태가 선택되어 이전의 변화와는 상당한 차이를 두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장 흥미있는 것은 겉옷과 속옷 사이의 경계의 모호함과 과거의 속옷스타일을 닮은 것이 현저해진 점이다. 디자이너들은 종전의 속옷 품목인 코르셋과 크리놀린을 겉옷으로서 발표하였으며, 남성은 19세기의 콤비네이션과 같은 면과 폴리에스테르 혼방의 보디슈트를 착용하였다. 남녀 모두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 인위적인 기구로서 자연스런 인체선을 변경하는 노력을 계속해왔다.¹²⁾

IV. 남성 속옷의 형태적 특징

1) 셔츠(shirt)

50년대에 코트스타일 셔츠(coat style shirt)¹³⁾는 계속 착용되었으며, 짧은 소매의 티 셔츠는 스포츠복으로 이용되었다. 낮은 턴 다운 칼라(turn down collar),¹⁴⁾ 좁은 주름 및 부드러운 앞부분으로 구성된 셔츠는 디너 자켓(dinner jacket)¹⁵⁾과 함께 계속 착용되었으며 윙 칼라(wing collar)의 이브닝 셔츠는 50년대 이후로 감소되었다. 또한 뾰족한 칼라와 관리가 용이한 합성소재의 개발로 인해, 남성은 깨끗한 셔츠를 매일 바꿔 입을 것이 습관화됨으로써 위생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50년대 후기와 60년대에 이브닝 셔츠는 러플과 주름으로 장식되었다. 즉 18세기에 유행된 러플이 셔츠 손목에 다시 이용되었으며, 16세기의 엘리자베스시대와 19세기 초기의 영국 섭정기시대¹⁶⁾를 연상하게 하는 목과 손목의 프릴 장식이나 보우로 장식된 셔츠가 유행하게 되어 겉옷과 마찬가지로 속옷도 레트로현상을 나타내었다(그림 1).

60년대에 밀착된 자켓이 유행됨에 따라 이전의 일직선형 셔츠와 함께 신체선을 드러내는 보디셔츠(body shirt)가 유행됨으로써 속옷이 겉옷의 영향을 받은 조형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셔츠는 형과 색상이 다양해졌으나 무지로 된 면소재에 작은 칼라와 작은 타이이 많이 이용되었고, 이브닝 셔츠에 유색이 이용되기도 하였지만 주로 흰색이 이용되었다. 또한 열대성 원색직물의 유행이 속옷에도 적용되어 50년대 후반부터 아프리카에서 영감을 얻은 셔츠나 서부의 카우보이 이미지에서 영감을 얻은 색이 바랜 데님소재의 셔츠-자켓(shirt jacket)¹⁷⁾이 유행되었으며 여름 휴일용으로 부시셔츠(bush shirt)¹⁸⁾가 이용되었다. 60년대 후반에 견소재의 터들넥(turtle neck) 이브닝 셔츠가 착용됨에 따라 이것을 모방한 가벼운 소재의 터들넥으로 된 스웨트가 착용되었다. 이 예로써 겉옷도 속옷을 모방하게 됨으로써 속옷도 겉옷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터들넥 셔츠는 네루 슈트(Nehru suit)¹⁹⁾가 사라진 후에도 계속 착용되었다.²⁰⁾ 60년대 초기부터 터들넥이나 칼라있는 셔츠가 양자택일로서 이용되었으나 노타이 차림에 대해 식당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었다. 셔츠는 웨이스트코트 없이 단독으로 착용되는 경우가 빈번해져 겉옷으로의 활용이 많아짐으로써 속옷이 겉옷화 되는 일면을 나타내었다.

60년대에 사파리 자켓의 유행으로 유니섹스 스타일이 인기가 있게 되자 이것이 속옷에 적용되어 남성은 꽃무늬 패턴, 부드럽고 유연한 소재로 된 셔츠를 착용한 반면에 여자는 트라우저 슈트를 받아들여 계속 착용하였다.

70년대에 셔츠는 밀착된 의복형태에 타이트한 소매와 긴 포인트로 된 큰 커프스로 이루어졌고²¹⁾ 셔츠의 칼라 크기는 슈트 칼라의 라펠 폭에 비례되었다.

스포츠 셔츠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이 이용되었다. 여름용은 티셔츠와 폴로셔츠가 이용되었고, 겨울용은 터들넥, 벨로어 폴오버 셔츠, 자카드패턴의 스웨트 셔츠(sweat shirt)²²⁾가 이용되었다. 해변이나 레저용으로 프린트나 색상이 대담한 짧은 소매 셔츠가 이용되었다.

이전에 밀착되었던 셔츠는 80년대에는 몸판과 소매가 풍성하게 변화되었다. 셔츠 칼라는 자켓 라펠 넓이에 따라 크기가 조절되었으나 칼라와 커프스는 대체로 작은 형태였다. 80년대 초기에 흰 칼라가 부착된 유색 셔츠나 프린트된 셔츠가 특히 인기가 있었다. 또한 하이킹과 캠핑에 대해 관심이 고조된 사회분위기로 인해 추운 기후를 고려한 면, 모, 견, 폴리프로필렌 소재 등을 이용한 온도용 속옷이 개발되었다.²³⁾ 그리고 남성은 메세지나 카툰 캐릭터로 장식된 티 셔츠와 스웨트 셔츠를 착용함으로써 80년대에는 장식성이 중요한 조형적 특징을 이루었다. 여름용 스포츠셔츠로 탱크 탑(tank top)이 이용되었으며 축구선수들이 착용한 그물 셔츠는 캐주얼 스포츠복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흰 무지 칼라와 커프스로 된 줄무늬 셔츠는 후에 gekko shirt로 불리어졌다(그림 3).²⁴⁾ 90년대에 셔츠는 약간 밀착된 형태에 덧단 트임으로 이루어졌으며, 좁은 타이나 노타이 차림이 많았다.

셔츠의 칼라는 이전까지는 분리될 수 있었으나, 70년대부터 셔츠에 완전히 부착되었다. 셔츠 칼라 형태(그림 4)는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 초기까지 칼라의 포인트가 넓어졌다가 그 이후부터 60년대에는 등글게 변화되었고 칼라 높이는 높게 재단되었다. 70년대에 칼라는 여전히 높았으나 좁고 긴 포인트로 변화되었고, 스티치로 외곽선을 장식한 칼라나 무지 칼라가 이용되기도 하였다. 80년대에 셔츠 칼라는 자켓 라펠 넓이에 따라 크기가 조절되었으나 대체로 작은 편이었으며 90년대에도 계속 작은 칼라형이 유지되었다.

20세기 후기의 셔츠는 무지 외에 줄무늬나 기하학적인 패턴이 주로 이용되었다(그림 2). 특히 60년대와 70년대에 밝은 색상 외에 줄무늬나 무지 셔츠에 흰 무지 칼라가 유행하였다. 소재로 면, 견, 린, 데님 외에 합성 니트 소재도 많이 이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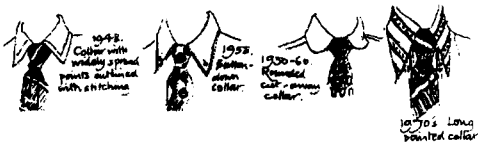
<그림 1> ruffle shirt, 1969.
Men's Fashion, p.168.



<그림 2> striped shirt, 1970s
Survey of Historic Costume, p.461.



<그림 3> Gekko shirt
Men's Fashion in The Twentieth Century, p.123.



<그림 4> collars Fashion in Costume 1200-1980, p.216.

2) 언더팬츠(underpants)

20세기 후기에 박스 쇼츠(shorts)²⁵⁾와 자키형 쇼

츠는 계속 착용되었으나 색상과 형태면에서 다양해졌다<그림 5>. 50년대 후반부터 60년대를 통해 아프리카나 서부의 카우보이 이미지의 쇼츠가 착용되거나 언더셔츠와 조화된 밝은 색상과 패턴의 쇼츠가 유행하였다. 60년대 말기에 남성도 무늬가 있는 브리츠나 신체에 밀착된 언더팬츠를 착용함으로써 팬츠의 혁명이 이루어졌다. 이전에 작은 프린트나 다양한 색상으로 이용되던 박스쇼츠는 밝은 색의 프린트로 변화되었고 니트 브리이프도 이용되었다. 겨울 스포츠용의 속옷에 색상이 도입되었고 스키용 드로워즈의 발목부분은 이랑진 커프스로 구성되었다.

노년층은 신체선을 드러내지 않는 험렁한 언더팬츠나 흰 무지 웨이스트코트를 고수하였으나 젊은층에서는 잘 차려입거나 선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형태를 선호함으로써²⁶⁾ 세대간에 따라 속옷의 기능과 기호도를 달리하였다. 즉 노년층은 실용성과 활동성을 중시한 반면에 젊은층에서는 의복형이나 색상 등의 외형적 형태 및 선정적인 면을 추구하였다.

70년대에 이르러 면 그물로 된 자키브리이프와 밝은 색을 띤 비키니형태의 쇼츠가 계속 이용되었으나 70년대 후반부터 박스쇼츠, 브리이프의 색상과 재단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다. 80년대에는 흰 니트 면과 나일론 브리이프, 이중 소재로 된 앞의 파우치부분, 옆부분이 캣웨이(cut away)²⁷⁾ 처리된 것이 특징적이었다. 새로운 남성 속옷인 자키 언더팬츠는 신체에 딱 맞게 밀착되자 다른 의복에 영향을 미쳐 살에 정교하게 밀착된 팬츠 재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자키 브리이프도 인해 인체에 밀착된 팬츠가 유행되는 것이 지속되었으나 80년대에 박스쇼츠가 다시 유행하게 되자 여유분이 많은 허리 주름의 트라우저가 다시 이용되었다.²⁸⁾ 이로써 속옷에 따라 겉옷도 함께 변화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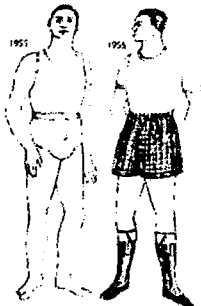
80년대의 건강과 신체 적합성에 대한 열기는 속옷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박스쇼츠와 함께 스포츠복의 영향이 반영된 디자인이 유행되었다. 남녀모두 새롭게 조절된 신체를 과시하기 위해 피부처럼 딱 맞는 라이크라 소재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젊은 남성은 근육체를 과시하기 위해 라이크라 언더베스트와 조화되는 브리이프를 착용하여 장식적인 측면을 나타내었다.²⁹⁾ 80년대 말에 다이어트와 운동을 위해

최소한의 속옷과 함께 눈에 띄지 않는 코르셋이 착용되기도 하였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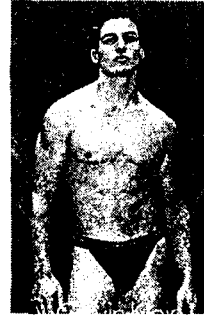
쿠퍼(Cooper)에 의해 시작된 속옷 변화는 80년대에 켈빈 크라인(Calvin Klein)에 의해 최고조에 달했다. 남성은 신체를 인식하게 되면서 남성의 선정적인 면을 중시하게 되었다. 켈빈 크라인이 디자인한 언더팬츠의 고무 허리밴드에 도입된 브랜드 명칭은 매우 매력있게 받아들여져서 진바지의 허리밴드 위로 브랜드 명칭이 노출되어 허리밴드가 과시되었다(그림 6).³¹⁾ 또한 속옷이 겉옷의 디자인에 이용되어서 속옷의 겉옷화 현상을 나타내었다(그림 10). 입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의 언더팬츠는 단추로써 에로티시즘이 표현되거나 엉덩이와 허벅지의 윤곽선을 따라 재단되었으며 특히 솔기로써 더욱 신체선이 부각되는 디자인이 개발되어 선정적인 면이 강조되었다. 속옷의 이러한 관능성은 이제 착용자 외에 보는 이도 같이 즐기게 되었다.³²⁾

90년대에 남성 속옷으로 짧은 끈 비키니형태인 저키인 탕가(tanga)가 많이 이용되었으며(그림 7)³³⁾ 쇼츠는 이전보다 밀착되었다. 쇼츠의 여밈에 지퍼가 이용되기도 하였으며(그림 8) 면·나일론 혼방이나 나일론 소재의 사용이 증가되었다. 또한 탐스티치 장식이나 별과 같은 패턴이 프린트되기도 하여 화려하고 장식적인 측면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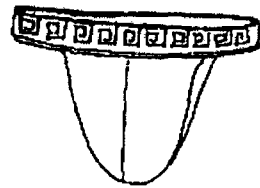
중세의 짧은 브리이프가 50년대에 리바이벌되어 나타나거나(그림 9) 15세기의 코드피스나 타이트함아 90년대의 비비안 웨스트우드나 장폴꼬티에 디자인에서 다시 나타남으로써³⁴⁾ 겉옷 못지 않게 속옷에서도 복고풍의 조형적 특징을 표출하였다(그림 11).



<그림 5> Y-front underpants, box shorts, 1955
Men's Fashion, p.159.



<그림 6> labeled underpants, 1996.
The man of Fashion, p.175.



<그림 7> tanga briefs 1994.
Underwears, p.61.



<그림 8> zipper shorts, 1994.
Men's Fashion, p.168.



<그림 9> briefs(左:20C, 右:15C)
Unmentionable, p.112-3.



<그림 10> Vivienne Westwood, 1996.
The man of Fashion, p.14.



<그림 11> Vivienne Westwood, 1997-1998.
The man of Fashion, p.14.

3) 웨이스트코트(waistcoat)

웨이스트코트는 베스트로도 불리어졌고 자켓과 조화되었으며 스리피스 슈트의 일부분으로 주로 착용되었다. 60년대에 밀착된 겉옷의 영향을 받아 웨이스트코트도 밀착되었으나, 싱글브레스트(single breast)와 민칼라 형태는 90년대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자켓과 조화되는 소재나 가죽소재가 인기가 있었으나 웨이스트코트가 착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70년대에는 웨이스트코트의 여밈에 단추 외에 지퍼도 이용되었다.

80년대 후기에 웨이스트코트는 밝은 색상과 큰 패턴으로 변화되었으며 견, 새틴, 루레스, 자수장식된 테님이 소재로 이용됨으로써 80년대의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던 속옷 경향을 나타내었다. 90년대에 웨이스트코트는 밀착되지 않으면서 크게 재단되었고, 단독으로 착용되는 경우도 많아져 겉옷으로 활

용되었다. 소재로 견, 브로케이드, 테님이 이용되었고, 색상은 여러가지 혼용되어 이용되었다.

타이처럼 베스트도 정장으로 착용될 때 남성의 인품이나 개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기회로 인식되었다. 색상 있는 소재나 선정적인 패턴을 통해 현대 남성이 탐닉하는 노출증의 유일한 형태로 표현되었고 다양한 디자인과 색상으로 개성을 표출하였다.³⁵⁾

웨이스트코트의 착용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짐으로써 20세기 후기의 속옷은 간소화 및 활동성이 증시된 특징을 나타내었다. 또한 60년대의 원색과 밀착된 형태 및 80년대의 화려한 소재를 통한 장식성으로써 웨이스트코트도 그 시대의 사회적 환경이나 겉옷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 보디 슈트(body suit)

보디 슈트(올인원: all in one)는 20세기 전기에 비해 80년대에 더욱 깊고 둥근 스쿠버 넥라인(scooped neckline), 깊이 파인 진동, 장식 솔기로 된 앞판의 옆트임 및 밑단이 스티치 장식된 짧은 바지로 구성되었으며, 면과 나일론 혼방의 흰니트 소재가 주로 이용되었다<그림 12>. 90년대에 최첨단 소재로 만든 면과 라이크라 혼방의 보디슈트는 단순한 형태로써 가장 실용적인 의복으로 받아들여졌다³⁶⁾. 90년대에 변화되는 겉옷의 패션과는 역으로 속옷은 변화 없이 이전 시기의 색상과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조형적 특징을 이룸으로써 이전에 변화되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즉 19세기의 콤비네이션과 같은 보디슈트가 그대로 이용되었다. 90년대에는 겉옷과 속옷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과 아울러 과거의 속옷스타일을 닮은 것이 현저하게 두드러졌다. 흔히 디자이너들은 이전에 속옷 품목인 코르셋과 크리놀린 및 보디슈트와 같은 것을 겉옷으로서 무대에 올렸다. 이와 같이 보디슈트는 속옷 외에 겉옷으로도 사용되어, 속옷의 겉옷화 현상뿐만 아니라 의복의 한 품목이 다용도로 이용된 실용적인 면을 나타내었다.

5) 싱글릿(singlet)

20세기 후기를 통해 싱글릿은 깊이 파인 둥근 넥라인과 민소매 형태를 계속 유지하였으며, 흰 니트

면이 소재로 많이 이용되었다. 50년대 말에는 그물 형태의 면 니트도 이용되었다. 끈 언더셔츠의 구멍은 피부호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건강과 위생에 상당한 관심을 가져 건강을 중시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20세기 후기를 통하여 다른 속옷에 비해 20세기 후기 동안 싱글릿은 특별한 변화 없이 단순하였다(그림 13).



<그림 12> All-in-one, 1988.
Men's Fashion, p.191.



<그림 13> singlet, 1989.
Men's Fashion, p.191.

6) 나이트웨어(nightwears)

20세기 후반의 패션 경향이 나이트웨어에도 적용되었다. 60년대에 파자마는 나이트웨어의 중요한 형태로 계속 이용되었으며, 밝은 색상이나 줄무늬로 된 나이트셔츠와 경쟁하여 파자마 스타일이 구축되었다. 파자마는 짧거나 긴 팬츠로 이루어졌으며 선명한 무지나 프린트된 색상이 이용되었다. 또한 겨울용으로 가벼운 소재가 인기가 있었으며 비싼 연료비와 경제적 이유로 60년대 후기 이후로 손목과 발목부분에 이랑이 진 트랙 슈트형의 파자마

가 이용되었다³⁷⁾. 파자마 스타일로써 팬츠와 더불어 하이넥이나 브이넥의 풀오버와 셔츠 칼라로 된 탑(top : 파자마의 옷옷)이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³⁸⁾ (그림 14, 15). 20세기 후기에 나이트웨어는 민칼라의 탑이 유행되다가 60년대 후반과 70년대에는 기모노스타일의 탑이 유행하였다. 파자마는 이전의 여밈 방식인 끈 묶음 대신 단추로 여밈 고무허리밴드가 이용되었다. 색상과 패턴이 다양해졌으며, 대조되는 색으로 파이핑과 바인딩을 많이 이용하였고 줄무늬를 애호하였다(그림 16).

여성 속옷은 색시함이 추구된 반면에 남성 속옷은 박스쇼츠가 고수되는 진부함과 함께 여전히 청결함과 편안함이 추구되었으나 80년대에 와서 남성도 선정적인 기능이 강화되었다. 종전에 노동층에서는 자키쇼츠를 착용하며 계이는 브리프를 선호하였으나 이러한 한계는 이제 더 이상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여성속옷의 패션에 따라 남성도 슈트 속의 속옷을 선택할 경우 동물왕국에서 수컷이 수컷의 전통적인 화려한 곳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변화될 것이다³⁹⁾.



<그림 14> pajamas of high-neck, 1960.
Men's Fashion, p.167.



<그림 15> pajamas of pullovers, 1967.
Men's Fashion, p.167.



<그림 16> pajamas of V-neck, 1970, Men's Fashion, p.167.

V. 결 론

20세기 후기에 나타난 남성 속옷의 품목별 형태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20세기 후기에 짧은 소매의 티 셔츠는 속옷 외에 스포츠복으로도 이용되어 속옷과 스포츠복과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60년대에는 밀착된 자켓이 유행됨에 따라 신체선을 드러낸 보디 셔츠가 이용되었고, 속옷을 모방한 터들 넥 스웨트나 셔츠-자켓도 착용되었다. 이브닝 셔츠 앞부분에는 이전에 유행되던 리플과 주름이 장식되어 복고풍을 나타내었다. 70년대에 셔츠는 몸판과 소매가 밀착되며 큰 커프스로 구성되는 형태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전에 분리가 가능하였던 칼라는 70년대부터 셔츠에 고정되었다. 80년대는 몸판과 소매가 풍성해진 반면에 커프스는 작아짐으로써 큰 형태변화를 나타내었고, 90년대의 셔츠는 약간 밀착된 형에 이중 트임 덧단이 이용되었다. 20세기 후기에 걸맞은 자켓에 따라 셔츠의 몸통과 소매통이 같은 비율로써 변화되었고 셔츠의 칼라는 보통 작은 편이었으나, 70년대에 셔츠 칼라는 슈트의 라펠 폭에 비례하여 변화되었다. 80년대부터 노타이 차림이 착용의 한 형태로 되어 스포티함을 추구하는 패션 경향이 속옷에 적용되었다.

2. 60년대 말기에 남성의 경우, 팬츠의 혁명이 이루어져 여성처럼 무늬가 있는 브리츠나 신체에 밀착된 언더팬츠를 착용하였다. 또한 박스 쇼츠도 밝은 색의 프린트로 변화되었고 니트 브리이프도 이용되었다. 젊은층은 성적 매력을 나타내는 형태나 디자인을 선호한 반면에 노년층은 흰 무지의 헐렁한 언더팬츠나 웨이스트코트를 계속 착용하였다. 70년대에는 그물로 된 면자키 브리이프와 비키니 쇼츠가 유행하였으며 80년대에 남성은 장식적인 면을 추구한 반면에, 신체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선정적인 면도 중시하였다. 90년대에는 남성 속옷으로 끈 비키니형태인 탕가가 많이 이용되었다
3. 웨이스트코트는 밀착된 형태에 민칼라와 싱글 브레스트로 구성되었고, 스리피스 슈트의 일부분으로 주로 착용되었으나 착용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소재는 자켓과 조화된 것이나 가죽 사용이 두드러졌다.
4. 나이트웨어로는 짧거나 긴 팬츠로 구성된 파자마와 나이트셔츠가 이용되었고, 70년대부터 파자마는 하이넥, 브이넥의 풀오버나 셔츠 칼라로 구성됨으로써 형태가 다양해졌다. 20세기 전기에 착용된 싱글릿과 올인원이 지속되었으나 콜셋이 거의 착용되지 않았으므로 의복형태 보다는 편안함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전기에 비해 후기에 속옷류는 색상과 무늬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밝은 색에 줄무늬가 인기 있었고, 소재로는 나일론이나 폴리에스터 면혼방이 보편적이었으며 데님 사용이 증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후기의 남성 속옷 특징에 관한 고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세기의 다변화되는 사회상을 반영한 전기와 더불어 20세기 후기도 스포츠 애호 현상과 복고풍이 만연한 사회분위기는 속옷에 그대로 적용되어 사회환경과 속옷과의 깊은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스포츠 애호현상은 속옷의 스포츠복화로 됨으로써 스포츠복과 속옷간의 긴밀한 교류를 나타내었다. 20세기 전기에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던 속옷의 리바이벌 현상은 20세기 후기에 두드러져 전·후기의 차이점을 보였다.

2. 20세기 전기와 마찬가지로 20세기 후기에 실용적이고 위생적 기능이 유지되었으나 셔츠를 매일 바꿔 입거나 싱글릿에 환기 구멍을 뚫음으로써 20세기 전기에 비해 위생적 기능이 강화되었다. 또한 데넵과 혼방 소재로 된 니트소재의 증가로 인해 실용성과 활동성이 중시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여성은 주로 선정적인 면을 추구한 반면에 남성은 청결과 편안함을 계속 고수하여 진부한 면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0세기 말기에 이르러 신체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남성도 선정적인 면을 추구하게 되는 큰 변화를 나타내어 속옷 기능상 중요한 특징을 보였다.
3. 여성 속옷에 보여졌던 속옷의 걸옷화 현상이 남성 속옷에도 적용되어 남녀 속옷의 공통된 면을 나타내었다. 이전에 속옷의 용도로 이용되던 것이 20세기 후기에 평상복이나 스포츠복으로 활용되어 걸옷의 역할을 하게 된 점은 속옷의 걸옷화 현상 외에도 20세기 후반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편리하고 활동적인 면이 지향되었음을 나타낸다. 또한 터틀넥 셔츠를 모방한 터틀넥 스웨트나 셔츠-재킷을 통해 속옷도 걸옷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고, 이것 또한 속옷의 걸옷화 현상을 나타낸다.
4. 자켓의 형태 변화에 따라 셔츠도 같이 변화됨으로써 걸옷에 따라 속옷의 형태가 변화됨을 알 수 있고 또한 트렁크 형태의 속옷으로 인해 넓은 트라우저가 착용된 점은 속옷에 의해 걸옷의 형태도 좌우됨을 알 수 있음으로써 속옷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속옷과 걸옷이 상호 보완적으로 변화됨으로써 걸옷의 형태변화에는 반드시 속옷의 형태변화도 같이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진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20세기 후기에 걸옷의 변화에 따라 속옷의 형태가 결정되었고, 역으로 걸옷이 속옷을 모방한 현상이 일어나 속옷사에서 속옷과 걸옷간의 상호 교류가 가장 빈번히 이루어짐으로써 속옷과 걸옷과의 경계가 모호해진 특징을 나타내었다.

참 고 문 헌

- 1) wysiwyg://33/http://business.fortunecity.com/nicholas/550/adj.htm
- 2) 김주애, 르네상스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복식, 40호, 1998, pp. 171-180., 김주애, 19세기 전기의 서양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학회, 복식문화연구, 7권 5호, 1999, pp. 56-67., 김주애,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연구 - 고대에서 근세까지-, 한국의류학회, 한국의류학회지, Vol. 24, No. 3, 2000, pp.353-360.
- 3) 김주애, 서양 남성 속옷의 변천에 관한 고찰 -20세기 전기-, 한국복식학회, 복식, 50권 5호, 2000, pp.53-64.
- 4) Nunn, Joa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p.214.
- 5) 영국디자이너(1957년~), 위트와 귀여운 분위기의 모자 디자이너
- 6) 남성복에 개성과 모던 감각의 패션 도입, 60년대 후반 남성 패션에 큰 영향을 끼침, 남성 셔츠의 프릴이나 슬랙스에 무늬가 등장한 패션
- 7)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p.54.
- 8) Costantino Maria, Men's Fashion in The Twentieth Century, BT Batsford, 1997, p.108.
- 9) Edwards Tim, Men in the Mirror, Cassell, 1997, p.60.
- 10) 어깨폭을 강조한 신사복
- 11) 1950년대 말 이탈리아풍의 영향을 받은 아메리칸 스타일, 긴 상의, 높은 허리, 등근 앞도련 및 전체적으로 폭이 좁은 바지가 특징
- 12) 青木英夫, 西洋男子服流行史, 源流社, 1994, p.158.

- 13) Ruby, Jennifer, op. cit., p.60.
- 14) 코트처럼 앞쪽에 단추가 달린 셔츠, 현재의 전 통적인 셔츠
- 15) 접은 칼라의 총칭으로 아래가 긴 것.
- 16) 야간의 약식 예장용 턱시도
- 17) 엘리자베스(1533-1603)시대, 영국 섭정기시대 (1811-1820)
- 18)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p.317.
목선, 앞단, 앞트임이 셔츠 스타일로 된 재킷, 원래 셔트란 속옷이었으나 1970년대의 레이어 드 룩의 유행에 의해 스포츠 셔트를 곁에 입는 재킷으로 착용한데서 유래
- 19)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op. cit., p.249.
아프리카 밀림 부시지대의 사냥시 카키색 면 재킷 착용: 싱글 브레스티드형, 벨트, 뽀족한 끝의 옷깃 및 크고 주름 잡힌 네 개의 주머니로 구성
- 20) 인도 네루수상의 복장에서 유래, 목선에서 곧게 세우고 끝을 둥글게 만들기도한 밴드칼라로 된 높은 깃의 네루칼라가 달린 슈트
- 21) Torrtora, Phyllis G. & Eubank, Keith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child Pub, 1995. p.459.
- 22) Peacock, John, Men's Fashion, Thames and Hudson, 1996, p.208.
- 23)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5. p.294.
운동선수의 트레이닝용 셔츠로 목둘레, 커프스, 셔츠 밑단을 니트로 처리
- 24) Torrtora, Phyllis G. & Eubank, Keith, op. Cit, p.493.
- 25) Costantino Maria, op. cit., p.123.
1988년 영화 Wall street에서 Gordon Gekko역 을 맡은 마이클 더그라스가 착용한 셔츠가 증권시장에서 여피 상인의 의복 상징으로 뒀에 따라 gekko 셔츠로 알려짐.
- 26) 패션큰사전 편찬위원회, op. Cit, 1999 p.325.
박스스타일의 남성 속내의
- 27) Nunn, Joan, op. cit., p.214.
- 28) 앞밑단을 허리주위에서 뒷쪽을 향해 비스듬하게 재단한 디자인
- 29) Roetzel Berntzel, Gentelman, Konemann, 1999, p.46.
- 30) Ruby, Jennifer, op. cit., p.58.
- 31) Ibid., p.39.
- 32) Costantino Maria, op. cit., p.122.
- 33) Mcdowell, Colin, The man of Fashion, Thames and Hudson, 1997, p.14.
- 34) Ruby, Jennifer, op. cit., p.61.
- 35) Ibid., p.33.
- 36) Mcdowell, Colin, op. cit., p.60.
- 37) Carter, Alison, Underwear, B. T. Batsford, 1992, p.10.
- 38) Nunn, Joan, op. cit., p.215.
- 39) Torrtora, Phyllis G. & Eubank, Keith, op. cit., p.495.